

‘송현동 부지’ 앞서 투쟁나선 대한항공 노조원

## “사유 재산 공원화 일방통행, 2만명 생존권 위협”

송현동 땅 매각 예비입찰 ‘전무’  
대한항공노조 사흘간 투쟁 돌입  
“공정 경쟁입찰 위해 족쇄 풀어야”  
市 “부지가 일시지급 등 검토중”

협의 요청을 하겠다던 서울시가 늦장 대응을 부리면서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과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3일간 투쟁에 들어간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복층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원화 계획을 공표해 이 같은 지구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노조는 송현동 부지의 매각 대신, MRO(항공 정비)나 기내식 사업부 등의 매각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됐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판 앞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수지 기자

며 경쟁입찰에 참여하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대한항공 2만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위기로 고용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는 고강도 지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통해 긴급 수혈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해 도심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송현동 부지에 대한 족쇄를 풀어 자유시장 경

제 논리에 맞게,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마감된 송현동 부지 매각의 예비입찰에서 단 한 군데도 응하지 않자, 결국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르면 60일 이내 권익위의 시정 권고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의 이 같은 결론이 강제성을 수반하지는 않아, 서울시가 아닌 대한항공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권익위가 권고를 내린다 해도,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송현동 부지를 놓고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도 대한항공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11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 대한항공 상황을 고려해 조기 매입 및 부지가(금액) 일시 지급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도 “대한항공과 매각 조건 등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 측에서는 지난 11일 진행했던(노조의) 첫 기자회견 이후 협의 요청 등을 해온 적이 없다”며 “향후(투쟁)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 그전에는 구두로(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정식 요청은 대한항공에서 권익위에 지급 민원을 접수한 것도 있고 해서, 상황을 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인 한데, 조만간 곧 뱉자고 할 것 같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게(구두상 입장 전달)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입장 차 가운데 보상비 납입 시기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당초 보상비를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송현동 부지 매각 대금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특별 약정에서 이 같은 자본확충안을 약속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가전을 나답게”... 삼성, 가전 슬로건 공개

광고, 온·오프 매장 등 통합 적용  
‘라이프스타일’ 가전 입지 확고히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 삼성전자는 17일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이같은 슬로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가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프로젝트 프리즘(ProjectPRISM)’을 발표할 바 있다.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은 그 후속작업으로, 가전제품 마케팅 전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슬로건은 각종 매체 광고는 물론 온·오프라인 매장, 제품 카탈로그 등에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며, 삼성 가전의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슬로건 디자인에는 ‘삼성블루’ 색상의 점을 활용해 삼성 가전제품이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틀에 박힌 기존 가전제품에 마칩표를 찍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프로젝트 프리즘의 첫번째 결과물로 ‘비스포크(BESPOKE)’ 냉장고를 공개하며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열었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제품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삼성 냉장고는 올 들어 1~5월까지 비스포크 냉장고 비중을 60%로 늘리면서 전체 냉장고 매출도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약 30% 늘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이후에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세탁·건조 경험을 혁신한 ‘그랑데 AI’,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삼성 제트’ 전용 먼지배출 시스템인 ‘청정스테이션’, 흡파티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등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혼수·이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에서 마케팅까지 소비자 중심의 가전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 SK가스, 작년 SV·EV 동반상승 ‘두토끼’

“오염배출 절감 등 사회적가치 창출”

SK가스가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SV)와 함께 영업이익 등 경제적가치(EV)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가스는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결과, 모두 2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가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중점 추진 중인 LPG차량 연료공급 확대 및 산업용 버거C유 LPG로 전환 등 대기오염 배출 절감 노력 결과, 지난해 104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전년 대비 약 29%가 늘었다.

LPG는 대기배출 오염물질이 타 연료에 비해 훨씬 적어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연료전환에 참여한 중소산업체들은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시설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SK가스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대 실시해 사고예방에 힘 썼으며,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고령자 재취업을 늘리는 등 사회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약 20%가 늘어난 98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89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84% 성장했다. 이를 통해 SK가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92% 증가한 984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는 SK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모델의 혁신방향으로, 각 관계사들은 영업이익 등 경제적가치(EV)와 함께 사회적가치를 매년 측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등 DBL을 주요 경영지표로 삼고 있다.

/김수지 기자

## LG, 서울대와 AI 생태계 육성... 인재양성 등 전방위 협력

AI 네트워크 키우고 인턴십 등 교류

LG가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서울대 AI연구원과 연구 협력을 맺었다.

LG사이언스파크와 서울대학교는 1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LG사이언스파크-서울대 AI연구원 공동연구협력’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은 서울대 교수 270여명을 주축으로 서울대 AI 연구진 2000여명이 대규모로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의 AI 연구 조직이다.

LG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학문적 연구성과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동연구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대에서 열린 공동연구협력 체결식에 참여한 서울대 AI연구원 장병탁 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및 교수진과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 배경훈 상무(앞줄 다섯번째) 및 연구원들. /LG

LG는 서울대 AI연구원과 함께 정기적인 연구성과 교류회를 통해 AI 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 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인턴십과 인력 교류로 인재양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은 그룹의 중장기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재용 기자 juk@

## KT, 우즈베크 데이터센터시장 진출

이지스자산운용과 글로벌 사업 맞손

KT는 이지스자산운용과 KT 광화문 빌딩에서 ‘우즈베키스탄 IDC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투자 1위 자산운용사다.

협약에 따라 KT는 우즈베키스탄 IDC 사업 컨설팅과 설계, 구축, 유지보수, 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 투자 참여구조 수립과 글로벌 진출 사업성 평가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김영우 글로벌

사업본부장, 이지스자산운용 CM부문 강영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향후 양사는 우즈베키스탄 IDC 사업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로 IDC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글로벌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이스트 텔레콤을 통해 IDC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IDC 사업 성공 가능성과 고객 수요를 확인했고, 연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나인 기자 silkni@